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적 국제개발협력과 지원 ODA

조건없는 '비구속성 원조' 늘리자

국제협력력을 위한 행동규범 (Code of Conduct)

1994년 르완다내전 당시 전세계 많은 NGO들의 다양한 형태로 현지에 파견돼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이때 NGO의 잘못된 활동을 최소화하고 수원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적십자, 적신월사 및 수백개 국제개발NGO들이 중심이 되어 NGO의 10가지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만들어 서명했다. 이것은 행동지침이기도 하면서 활동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후 모든 활동이전에 국제기구들간의 행동방침이 만들어지는 전례가 되었다. 그리고 한편 지원하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지원의 원칙을 명기하는 행동규범을 작성되기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도주의적 의무(도덕적 명령)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
2. 지원을 함에 있어, 수혜자의 인종, 신념, 종교, 국적을 불문하며 어떤 종류의 불리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지원의 우선순위는 오직 필요만을 근거로 정한다.

국제 NGO 10가지 행동규범 제정

한국 NGO 90%는 기독교 단체

'선교활동' 감춰진 주 목적

3. 지원은 특정한 정치, 종교적 입장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4. 우리는 정부의 대외정책의 도구로 행동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우리는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6. 우리는 지역적 지원능력에 기반을 둔 재단대응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7. 프로그램 수혜자를 구조지원을 관리하는 일에 관여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8. 구조지원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만 아니라 재난에 대한 미래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9. 우리는 지원수혜자와 자원기부자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진다.
10. 우리는 정보, 광고, 홍보활동에 있어, 재난의 피해자들을 희망이 없는 대상으로서 아니라, 존엄성을 갖는 인간존재로서 인정해야 한다.

피해를 끼치지 말라 (Do No Harm)

가난한 나라의 개발구호를 하기 위해서는 위 10가지 지침에 의거해야 한다. 물론 이 10가지는 최소한의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인도주의적 의무가 첫 번째라는 말은 과거 적십자 정신으로 알려진 것으로 전쟁이 날 때, 적이라고 할지라도 굶거나 다치면 식량을 줘야하고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주의란 오로지 사람만 보는 것이다. 그를 둘러싼 국가, 정치, 종교, 이념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세 번째가 가장 관건이였



한국국제협력기구(KOICA)가 진행한 라오스 원조 모습. 생태적 국가협력력을 위해서는 조건이 붙는 '구속성 원조'가 아닌 '비구속성 원조'가 확대되어야 한다.

다. 우리나라 국제 NGO단체들의 90%는 기독교단체고 특히 이중에 반이상의 공식목표(Official Aims)는 '인도적 지원'이지만 감춰진 목표 (Hidden Aims)는 '선교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2007년 7월 19일 분당 샘물교회 교인이 중심이 돼 20여명이 피랍된 사건처럼, 한국 선교사는 세계적으로 2만명을 넘기면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다. 대부분 NGO를 제외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현지에서 보면 매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중동지역에서는 한국인을 미국정부와 동일시해 테러 대상이 되게 하는 주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를 확대시키기 위해 개발협력활동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세 번째 행동규범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배교과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하나 주면서 종교적 신념을 바꾸려는 비열한 행위로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는다. 그 경우처럼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사실 안가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도움은 되지 못할 지원정 '피해를 끼치지 말라

(Do No Harm)'고 강조한다.

도와준다고 다 도움 되지 않아

실제 정부기구나 비정부기구의 많은 협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과연 정당한 지원이였는지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는다. 당장의 경제적인 도움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산업사회의 서구문화를 이식하게 만들어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급 소비시장을 형성하게 만들고, 현지 물가수준과 집세를 높여 결국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정부기구든 비정부기구든 수원국가에서는 오지에 나와 있는 직원이나 활동가들의 높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위화감은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한 고위공무원은 정부기구든, 비정부기구든 여기에 오지 말고 그냥 돈으로 지원하라고 한다.

비행기 티켓값이나 그들 집세와 월급만 절약해도 가난한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쟁이나 재난을 당한 가난한 나라의

경우 영어를 할 줄 알거나 교육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국제기구나 외국단체나 국제 NGO에서 일을 하게 되어, 정작 혼란스러운 국가 정책을 제대로 만들 엘리트들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원하고 돕는 활동을 하는 NGO활동가라도 그 국가에 발을 딛는 순간 본의 아니게 영향을 주게 된다. 가난한이들로 하여금 잘사는 자신을 선망하게 만들고, 자신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며 구걸하게 만든다. 종교적이며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지인들에게 외국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오만불손한 생활에 대해 적의를 품기도 한다. 한국의 개발 NGO들은 대부분 포교나 선교가 주된 목적이 되지 않는다.

종교와 연관된다면 포교를 염두해 둔다고 보다는 이미 불교화된 국가에 대한 우호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종교적 포교를 고려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

국가 해외원조와 ODA(공적개발원조) 현재 2010년 ODA규모는 8억1천 600만달러로

ODA/GNI규모로 볼 때 0.10%로 늘어났지만 국제적 권고치인 0.7%에는 1/7정도에 이를 뿐이다. 그동안 한국은 GNI 세계 13위(2012년 현재는 23위)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안락의 비탄을 받아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2012년에는 0.15%, 2015년까지는 약 3배에 해당하는 0.25%를 증액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2009년 11월 25일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에 가입이 결정되어 2010년 1월1일부터 활동을 해왔다. 따라서 이를 위해 DAC의 권고사항과 의사사항을 위해 대책에 부심해왔다. DAC규범은 강제수단은 없지만 다양한 정책대화와 동료평가(Peer Review)등 절차상 의무를 통해 사실상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원조방식은 만든 문제점을 받아왔다. 원조는 유상원조(양허성 차관과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무상원조(증여)로 나뉜다. 우리나라 유상원조는 현재 수출입은행이, 무상원조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맡아서 집행하고 있다. 이처럼 집행 기구가 나뉘어져 있어 서로 통합적

해외 원조 계층 위화감 조성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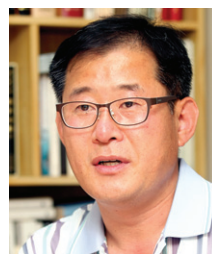
한국은 경제력 대비 국제적 역할 못해

지원국 개발방식 이식 '비생태적'

효과적인 원조정책을 펴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유상원조의 비율 28.8%로 다른 OECD국가중 아주 높다는 점이다. 또 구속성원조 (Tied Aid)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구속성원조란 '조건이 붙는 원조'이다. 즉 자국의 물건, 자국의 인력과 기술을 사용하라는 조건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설계를 하여 기술자가 파견되고, 자재도 한국에서 운반하여 건설을 지어주는데 현지 국가는 일용잡부나 약간의 기술자만 고용할 뿐이다. 이렇게해서 지원했다는 원조액 상당수가 다시 한국인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상품을 판매하게 만들고 이후 지속적 경제이득을 도모하려는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비판되고 있다.

따라서 비구속성원조 (Untied Aid)를 늘려야 하는데, 2008년 OECD의 일원국인 DAC평균 양자간 원조 중에 비구속성원조의 평균비율은 91.9%인데 반해 우리는 24.7%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임찰을 삼성, LG, 현대, 대우가 모두 선정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원하는 국가의 철학과 방법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지원 하는 자기국가의 개발방식을 가난한 나라에 이식하려고 한다. 지속불가능한 개발방식 선진국을 추종하는 개발방식을 이전하려한다. 결코 생태적이지 않으며 지원소비적 경제성장을 이식하는 것이다.



유정길 (예코부터) 전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소심
기침
도양석
중풍
예불
공양
간경과 눈장
윤력
염불
기도와 정근
취침
출가
식반
수계
법명
가사
총림
안거
용맹정진
포살과 자자
대중공사
경행
시불
민행
토굴
다비와 사리
법회와 제일
시타림과 49재
시식
축원
방생
관불과 연등
우란분절
보살계

산사는 길다

산사의 생활 문화로
산사의 생활 문화로

들어가는 34가지 이야기
들어가는 34가지 이야기

저안스님 저음

저안스님 저음

저안스님 저음 | 울절리 | 256면 | 15,000원

우리 산사의 진면목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풀어낸 적이 있었을까!

지안스님의 40년 절집 생활에서 걸러낸 산사 생활의 정수

지안스님 1970년 통도사에서 백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4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 정법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장, 조계종 승가대학 원 직장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고시위원장이자 안자불교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HOW YOUR MIND CAN HEAL YOUR BODY

치유의 기적을 만드는 과학적 이미지힐링 요법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마침내 밝혀지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마음의 놀라운 치유력!

데이비드 해밀턴 저음
정현갑·김미옥 옮김
372면 | 17,000원

놀라운 치유의 기적,
이제 당신도 느껴 보라!

심신의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해밀턴 박사가 내놓은 이 획기적인 책은 이미지힐링과 믿음, 긍정적 사고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다. 지자는 혁명적인 '양자장 치유법'을 언급하면서 상상력과 사고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방어 기제와 치유 시스템을 강화시켜 각종 질병을 물리치는 방법을 제시한다.